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잡지홍수...한사람 한달 한권꼴—3천여종...매월 4천3백만부 발행 / 경제, 종교, 과학, 시사지가 가장 많아 / “일부잡지 향락 소비조장...외설 해독도 크다” 비판(동아일보 6월3일 高美錫기자)
- 종교서적 만화화 붐—성경, 불경, 동양사상 / 쉽게 풀어 어린이서성인까지 인기 / ‘출애굽기’ 5판 찍어...불교 동양사상 번역물도(스포츠서울 6월 4일 류창하기자)
- 사치성 업체 특별세무조사—종이도매상·출판사 탈세 행위도(한겨레신문 6월4일)
- “외설잡지 규제장치 급하다”—도서잡지 주간신문 윤리위원회 ‘선전주의 추방’ 세미나 / 윤리위원회의 준수법기능 아쉬워 / 전문서점 뒤 청소년과는 멀리해야(중앙일보 6월5일 李憲益기자)
- 기업 문화지원 전시효과에 치중—규모에 비해 실속 미흡...문학·출판 등 푸대접 / 문예지 구독 거의 중단 / 사원 교육용만 사들여 / 장기적 투자엔 무관심(중앙경제신문 6월6일 朴海鉉기자)
- “윤리위에 준수법기능 부여”—올바른 대중잡지의 위상 세미나 중계 / 지나친 性的 상품화, 미풍양속 저해 / “청소년에 유해한 대중잡지 추방을” (서울신문 6월6일 金在暎기자)
- 외설잡지 규제 시급—도서잡지 주간신문 윤리위원회 세미나 / 윤리위에 준수법적 권한...적극 고발케(중앙경제신문 6월6일)
- 사회과학 출판사들 ‘체질개선 몸부림’—민중문학·무크지 간행 등으로 활로 찾아—지하·이념서적들 초판소화도 어려워 / 조악한 번역, 중복출판...‘뿔물현상’에 당황(세계일보 6월6일 趙佑石기자)
- 「독립운동교양총서」나왔다—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서 펴내 / 우선 11권만...申采浩저술 위인전 포함 / 전시내용 토대 분야별 체계화(한국일보 6월6일 李基稔

- 기자)
- 독자 우롱하는 중복출판 급증—5~10년전 작품들 신작집에 넣기 일쑤 / 문제작, 대표작 등 시리즈 붐 / 印稅노린 작가 良識도 문제(서울경제신문 6월6일 姜升遠기자)
- 일본에 자서전 출판 ‘붐’—평범한 인생살이 진솔하게 담아 / 모두 自費...전문회사 생겨 큰호응(한국일보 6월7일 丁薰득과원)
- 광고 과학화 길 터—ABC협회 출범 / 인쇄매체 발행부수, 독자성향 등 공개조사 / 내년말 첫보고서...검증원칙 마련이 과제(한겨레신문 6월7일 김성호기자)
- 급진운동권 主思·레닌派 ‘불붙은 논쟁’—재야, 대학가 등 사상대결 환장 / 서로가 ‘잡사상’ 비난...출판물도 공방 / 작년부터 표면화...‘혁명분위기’ 간주 주도권 다툼(조선일보 6월7일 金泰翼기자)
- “대중잡지 ‘외설물’ 판권다”—‘도서잡지 주간신문 윤리위’ 세미나서 지적 / 섹스, 폭력, 영웅주의 무분별 게재 / 탈선고발 핑계로 오히려 탈선조장 / 준수법적 권한부여 자율정화추구(국민일보 6월7일 朴太堅기자)
- 연세대 교수들이 「진리·자유」지 창간 / 어려운 때 옳은 소리로 감동풀기 시도 / “대학의 목소리 총체적 정리” 관심집중(한국일보 6월8일)
- “문단 재소한인문학 재조명 활발” / 망명 趙明照작품 등 잇따라 발간 / 한인의 단편모음 「자밀라, 너는 나의 생명」 국내 첫선(동아일보 6월7일 高美錫기자)
- 性교육도서·강좌 붐—“청소년들의 성범죄 막자”—호기심 부추기지 않게 책선정 잘해야 / 의학설명 곁들인 동화책 큰 인기 / 가족계획협회선 부모교실도 마련(중앙경제신문 6월8일 李德揆기자)
- 파행교육 고발 ‘두권의 책’ 화제 / 정영상시집 「행복은 성적이 아니다」—삭막한 현장풍토 개탄, 화해와 사랑 노래 / 임정진소설 「행복은 성적이 아니잖아요」—입시지옥 속 청소년들 고민과 방황 그려(스포츠서울 6월8일 오정국기자)
- 매머드全集 출간 러시—문단·출판계 ‘손에 손잡고’—작가연구, 문학사재구성작업도 활기 / 중소출판사가 앞장...독자호응 기대(국민일보 6월8일 朴太堅기자)

- “출판기획 새흐름 눈길”—편집위원회 구성, 국내 집필자 발굴, 중·장기 대형전집 / ‘북한’ 등 금기 줄어 든 뒤 ‘불만한 책 빈곤’ 반성 / 학술 ‘프로젝트’ 활발...90년대 질적 성장 기대(한겨레신문 6월8일 신연숙기자)
- “성인만화 역사외식 왜곡”—연대만화서클, 李賢世·許永萬씨 작품 비판 / 항일·노동운동·성문제 등 극화 / 사회현실회피 폭력·퇴폐 조장(국민일보 6월9일 朴太堅기자)
- 불교문학 테두리 설정 시도—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, 「詩와 불교의 만남」 출간 / 만해의 시 등 종교색채 짙은 1백편 선정 / 작품 한편마다 에세이비평도 함께 붙여(서울신문 6월9일 李憲淑기자)
- 「화랑세기」 필사본 파문—“가짜 가능성 높다” / 내용·서술 체계·글자체·용어 의문점 많아 / 일본색 짙고 출처도 불분명...도론회 제의(한겨레신문 6월9일 김영철기자)
- 화제 外書 소설 출판 붐—「레인맨」 「간디」 「오피셜 스토리」 등 / 흥행에 힘입어 베스트셀러(중앙경제신문 6월9일)
- ‘저작권 침해’ 告訴 증가—작년의 2배...조정신청은 줄어 / 처벌강화...불법복제업자 첫 實刑(중앙경제신문 6월9일 金龍善기자)
- “金玉均 유배實錄 찾았다”—‘공백복원’ 개화기연구 새 章 / 金八峰선생 유품정리 중 발견 유족들이 기탁 / 갑신정변 후 日孤島의 유배 생활 날날이 기록(한국일보 6월9일 金薰기자)
- 소설집이 쏟아져 나온다—“여름철 독자를 확보하자”—7월까지 장·단편집 30~40권 출간할듯 / 최근엔 독서시즌 붐·가을서 여름·겨울로 변화 / “한철 집중출간은 독자군 형성의 균형 저해” 우려(세계일보 6월10일 梁憲錫기자)
- “金達鎭 유작집 나온다”—漢詩 국역의 제1인자 / 「한국漢詩」...서정넘치는 1천8백수 수록 / 양가집 규수·妓女들의 은밀한 글도 선보여(세계일보 6월10일 趙佑石기자)
- 교육관계서적 출판 붐—일선교사·학생·교육전문가 공동작업 / 이론서, 무크, 일기, 편지, 강의, 시, 수필 형식 / 민주화·자치제 실현·독립성 강조(국민일보 6월12일 朴太堅기자)
- 잡지창간 홍수...저질화 우려 / 자율화 후 하루 2~3종씩...1천여종

- 늘어 / 독자확보 과열경쟁 흥미위주 줄속제작도(경향신문 6월12일 安健熨기자)
- 논문표절시비 증가—양식을 파는 과립치한 학자들 / 울들어 7건...각주까지 빼겨 / 스승의 古稀기념論叢에도(중앙경제신문 6월13일 金龍善기자)
- “본격 오디오북 시대” / 시·소설에 수험서까지 카세트에 담아 / 출판사들 아예 레코드생산회사 설립(세계일보 6월13일 申敏亨기자)
- 문학성·대중성 “완벽한 조화”—李文烈의 작품세계 좌담 / 종교·이념·청춘의 방황 소재로 / 독자들에게 “내가 주인공” 느끼게(조선일보 6월13일)
- 영화계 소식지 창간 러시 / 감독협의회 ‘우리영화’ 등 단체별로 ‘대부분 일반적 주장’ 지적도(중앙경제신문 6월14일 朴興魯기자)
- “도서유통질서 바로잡자”—서울 25개 출판사 영업부장 ‘도서유통개선협의회’ 발족 / 이종마진·악성어음 남발 등 구조개선노력 / 1년전부터 활동...도매상·서점 호응도 늘어(한겨레신문 6월15일 신연숙기자)
- “문인들 원고료 9년째 제자리”—2백자원고서 1장당 3천5백원 / 부업·대중소설 써야 생활고해결(서울경제신문 6월16일 姜升遠기자)
- “너무 어려워 흥미 못끌어”—과학도서 제구실 못한다 / 劉載天교수 세미나서 주장 /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(중앙경제신문 6월16일) “출판메카 대단위 문화단지 세운다”—20여 출판사대표들 설립 구체화 / 분당·일산지역 후보지로 거론 / 이달중 설립조합 발족...관련업체 수용(중앙경제신문 6월16일 金龍善기자)
- “알기쉬운 禪書 출간 활발” / 「山房夜話」 등 이어 91년까지 40권 펴낼 계획 / 깨달음 얻은 祖師들 어록담아(동아일보 6월17일 尹正國기자)
- 국내학자저서 북한원전 표절시비—“「한국연극사」가 북한 「조선민간극」 베꼈다” 주장 / “인용부호·주석도 없이 卞이상 도용” / 저자 李씨 “시대상황 때문에 出典 못밝혔다” / 북한 저작권 싸고 논의 본격화될듯(세계일보 6월18일 李仲洙기자)
- 蘇·중국 작품 번역 활기—세계

- 문학전집 歐美위주 탈피 / 중소출판사서 앞장...8월중 첫선 보여 / 북방정책 붐 영향... 탈이데올로기 시도(국민일보 6월19일 朴太堅기자)
- “음란만화 재범람 막아라”—대본소 판매시기 기회만 노려 / “문공부 검열 거쳤다” 허위광고 하는 곳도 / ‘본격·완전성인물’ 선정적용어 앞에 붙여 청소년 유혹(스포츠서울 6월19일 정인학기자)
- “출판문화 ‘컴퓨터시대’ 본격대비를”—대한출판문화협회 90년대전략 세미나 / 서적의 輕薄短小化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/ ‘온라인 잡지’ 위한 데이터뱅크도(경향신문 6월19일 安健熨기자)
- “남한겨우 유족에 소유권 우선”—서울地法, 남·월북 작가 저작권 분쟁에 첫판결 / 북의 부인은 重婚...법적보호 막 / 朴泰遠소설 저작권시비 가려진 셈(중앙일보 6월19일 李憲益기자)
- “교과서개발 官주도 이제 그만”—한국2종교과서협회 세미나 열고 民主도로 전환 촉구 / 현행대론 “이념재생산 도구로 이용” 비난 못면체(중앙일보 6월19일 李夏慶기자)
- “外書 번역서도 잘팔린다”—「마지막황제」 「레인맨」 「개같은 내인생」등 / 영화의 전달단계 활자로 보완 / 줄속번역...“配給社 홍보” 악용도(조선일보 6월20일 崔球植기자)
- “전문출판” 적극 지원해야—출판경영자 세미나 ‘우수 청소년도서 개발 방안’(한겨레신문 6월20일)
- “청소년도서 국가차원 대책시급”—劉載天교수 출판세미나 주제 발표 / 입시·상업주의 출판풍토 큰 장애 / 추천서 구대의연...수십년간 동일(조선일보 6월21일, 崔球植기자)
- 6.25 종합고찰 저서 속속 출간—「秘史 한국전쟁」 등 번역출판 주중 / ‘전통’ ‘수정주의’ 논리 결집 종합해석 / 미체협세대 객관적 인식에 도움 줄듯(내외경제신문 6월21일)
- “그림시집” 서점가 휩쓸다 / 대부분 무명 시인 작품집...베스트셀러 독점 / 곳곳에 만화·그림·사진 실는 ‘보는시집’ 지향(세계일보 6월21일)
- 인쇄매체 한계 극복할 때—출판경영자 세미나 / 출판...정보화시대 걸맞은 상품개발을(한국경제신문 6월21일)